

# 불투명한 서부선 개통에 서울시민 “市에서 예산 확보해야”

### 서부선 착공 예산 확보 민원 제기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협상 필요” 자영업 출산급여 대상 확대 요구도

서울시민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부선 예산 확보, 자영업자 출산급여 대상 확대 등을 요청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정과 관련된 비전을 제시하는 창구 ‘시장에게 바란다’에 서부선 사업 착공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달라는 민원이 최근 제기됐다.

민원인 A씨는 “서부선 착공에 서울시의 의지가 있는 건지 궁금하다”며 “50억원이 큰돈은 맞지만, 서울시가 그 정도가 부족해 착공이 안 되는 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부선 경전철사업은 은평구 새절역(6호선)~여의도~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 총연장 16.15km 구간에 정거장 16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노선 계획 변경 등으로 목표 개통 시점이 2017년에서 2028년으로 미뤄졌으나, 사업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 문제로 여

전히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시도시 교통실은 지난 4월 30일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와 민투자사업자 측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50억~60억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지난 2023년 제4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투심) 심의 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 컨소시엄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시 교통정책과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되는 본 사업의 특성상 민투심 의견에 대해 협상 당사자 간 합의를 거쳐 상정해야 함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를 완료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자영업자 출산급여대상을 확대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오는 7월 출산 예정인 부인을 둔 서울시민 B씨는 “만삭인 와이프는 조그만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다”면서 “서울시에 자영업자 출산급여라는 좋은 정책이 있는 것

같아 기쁜 마음에 찾아보니 1인 자영업자에 한정돼 있었다”면서 “직원을 고용 중인 자영업자들이 지원 대상에서 빠진 이유를 모르겠다. 여유가 있어서 직원을 고용한 것이 아닌 정말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닫을 수 없기에 무리해 고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며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시는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사업으로 올 4월 22일 이후 출산가구부터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임산부에게 출산급여 90만원을 지원한다. 또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가정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원을 제공한다.

시 양성평등담당관은 “1인 자영업자뿐 아니라 고용원이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출산이나 육아시 휴가 또는 휴직의 개념을 적용받지 못해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따라서 시는 내년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수혜 대상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공공자전거 따릉이 누적이용 2억건 ‘코앞’

운영대수 4.5만대, 대여소 2700곳 이용건수, 2010년 대비 300배 증가

서울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누적 이용 건수가 1억9000만건에 달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하루 평균 따릉이 이용 건수는 지난 2010년 413건에서 작년 12만건으로 약 300배 증가했다. 지난달 기준 누적 이용 건수는 1억9000만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민 1명당 따릉이를 20번가량 이용한 셈이다.

따릉이 운영 대수는 시범 운영 시기였던 2010년 440대에서 현재 4만5000대로 102배 늘었다. 동 기간 대여소는 44곳에서 2700곳으로 61배 넘게 증가했다.

오세훈 시장은 캐나다 공공자전거 시스템 ‘빅시(BIXI)’에서 착안해 2010년 따릉이 440대를 시범 도입했고, 2015년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공공자전거 이용 수요를 파악하



따릉이 이용 모습. /서울시

기 위해 서울연구원과 따릉이 이용 데이터를 분석했다. 지난 2019~2023년 월별 따릉이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동절기인 1~4월 이용 건수가 2019년 334만건(17.5%)에서 작년 1177만건(26.2%)으로 3.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따릉이의 주중 이용 건수는 2.5배, 주말은 2.1배 증가했다. 2019년과 2023년 모두 주중에는 오전 8~9시보다 저녁 6~7시 이용이 많았다. 주말에는 오후 5~6시에 따릉이를 가장 많이 타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정 기자

##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본다

### 11월, 초·중·고교 10만명 대상 실시 참여 학교 500개교... 2배 이상 늘어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학생 10만명을 대상으로 문해력·수리력 검사를 실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과 미래역량 함양을 위해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올해 500개교 약 10만명의 학생이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초·중·고교 210곳에서 약 4만 5000명의 학생이 참여했지만, 올해는 이보다 2배 이상 늘어 500개교에서 약 10만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

사’는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과 미래역량 함양을 위하여 시교육청에서 서울시의회와 지원을 받아 2023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검사 도구이다. 이는 여러 교과를 학습하는 데 기반이 되는 기초 소양인 문해력과 수리력을 진단할 수 있는 범교과적 검사 도구로 개발됐다는 점에서 교과를 기반으로 한 기존의 기초학력 진단 도구와는 차이가 있다.

시교육청은 진단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소양교육 지원 협의체 운영 ▲문해력·수리력 신장 위한 지도자료 개발 보급 ▲수업 역량 강화 연수 운영 ▲방과후학교 기초 문해력·수리력 프로그램 개설 ▲학습지원대상 학생 위

한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진단검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기간동안 학교 일정을 고려해 학년 또는 학급별로 자율적으로 시행된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이달 24·25일 양일간 왕십리 디노체 컨벤션에서 초·중 등 시행학교 및 진단검사에 관심 있는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등 600여명을 대상으로 ‘2024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설명회’를 실시한다.

설명회에는 미래학력의 기초소양으로서의 문해력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전문가 특강이 마련된다. /이현진 기자 ihj@

## “경기바다 해양레저, 할인 받고 즐기세요”

경기도, 관광상품 최대 30% 할인

경기도는 해양레저관광 저변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받아 즐기는 경기바다’ 해양레저관광 상품을 오는 25일부터 온라인으로 본격 판매한다.

‘지원받아 즐기는 경기바다’는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김포, 안산, 화성, 시흥, 평택의 바다 또는 인근에서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 관광 및 체험 상품을 최대 30%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상품이다.

경기도는 지난 4월 도내 해양레저스 포츠, 관광업체, 어촌체험마을을 대상

으로 설명회를 열고 23개 관련업체를 ‘경기바다 해양레저 네트워크’로 구성했다. 또 업체 간 대표 프로그램을 엮은 다양한 해양관광상품 개발과 경기바다 홈페이지, SNS 등 매체 홍보 및 판로 개척 등 지원방안을 모색 중이다.

상품 내용은 주로 시흥 및 제부도 등 경기바다 일대에서 요/보트, 서핑, 제트보드 등의 해양레저기구 체험과 서해량 해상케이블카, 선셋투어, 어촌체험 등 해양관광 프로그램 등이며, 상품은 경기바다관광 해양레저통합포털기 획전 페이지를 이용하거나, 11번가 또는 쿠팡에서 ‘경기바다’를 검색해 구입할 수 있다. /경기·유진재 기자 yujin@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이번주 ‘기로’

### 이번주서울시의회 사정 전망 시교육청 “가결 시 대법원 제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이르면 이번 주 서울시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가 오는 25일과 28일 각각 본회의를 열고 상정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상정될 수 있

다는 관측이 나온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 4월 26일 ‘제323회 서울시의회’에서 재석 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으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월 재의를 요구하면서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김현기 의장이 이달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자신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의회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할 경우,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시의회 다수당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한 국민의힘이기 때문이다. 정원 112명 중 75명이 국민의힘, 36명이 민주당이다.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확정된다.

조교육감은 시의회에서 조례폐지안을 또 가결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이다.

28일까지 조례 폐지안이 상정되지 않으면 안건 처리는 다음 회기인 9월로 미뤄지게 된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2 | 해질 / 19:57

6월 25일(화) 음력 : 5월 20일

수도권 날씨 19~27°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15/28, 동두천 16/28, 가평 15/28, 파주 15/28, 서울 19/27, 양평 16/27, 인천 19/24, 수원 19/26, 용인 19/26, 평택 17/27, 백령도 18/25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인도 “대중관계 정상화에 국경지대 평화가 가장 중요” /사진 뉴스스  
▲美합참의장 “이란, 헤즈볼라 지원할 것”...이스라엘에 경고

▲한미일 “러북 군사협력 심화,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 공동성명  
▲中 중경 부동산업체 카이사 청산 심리 7주 연기



▲日스가 전 총리도 기시다 퇴진 압박... “새 리더 나와야”  
▲젤렌스키 “서방 무기로 러시아 내 공군기 타격 허용해야” /사진 뉴스스